

진도 디지털공부방 ‘일취월장’, 미래형 교육복지 실현 ‘성큼’

이달 중순부터...학생 개개인 AI 학습 진단
교육경비 2배 증액...맞춤형 미래인재 양성

진도군이 ‘AI 스마트 학습’ 서비스 제공과 자기 주도형 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일취월장’ 운영으로 미래형 교육복지 실현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일취월장’ 디지털공부방의 시스템을 최종 점검한 후 이달 중순부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진도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

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며,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형 교육복지를 한 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취월장’은 학생 개개인의 AI 학습 진단을 통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AI 에듀케어’와 대학생을 관내 중·고등학생과 연결하는 1대1 화상수업 지도(멘토링)로 진행된다.
‘AI 에듀케어’는 관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약 880명에게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총 5과목에 대한 학습 서비스와 함께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와 해설을 제공한다.

1대1 화상수업 지도(멘토링)는 ‘고2 집중케어’를 포함해 80명을 해당 학교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진로 상담과 자기주도학습 공부법 등을 알려주며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교육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기금으로 관내 초·중·고학생 100명에게 진행한 ‘월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놓여준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상을 300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학부모들의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 강화와 관외 학생 유입,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교 신입생 해외문화탐방’의 1인당 지원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학금 수혜자 확대와 장학금 상향을 추진하며 맞춤형 미래인재를 위한 교육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진도군은 공약사항 이행, 신규 교육정책 발굴,

공모사업 선정 등 지난 민선7기(2021년도 기준) 교육경비 예산인 22억원과 비교해 민선 8기(2025년도 기준)에는 2배 이상이 증액된 45억원을 투입하며 ‘인재를 키우는 교육, 민선 8기 5대 균형 방침’ 기조에 맞춰 진도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혁신의 담대한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아이날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진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지난해 열린 제5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선수. <신안군 제공>

내일 신안서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 개막

사흘간 라마다 자은도서

신안군은 3일 “오는 5일 개막을 시작으로 7일까지 라마다 프라자 자은도에서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와 신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호주, 루마니아 등 세계 8개국에서 45세(1980년생) 이상의 각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기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영화 ‘승부’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진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 제2회, 3회, 5회 대회에서 3차례 우승을 거머쥔 디

펜딩 챔피언 유창혁 구단이 한국 대표로 출전,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린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웨이 구단, 저우허양 구단, 아미사타 게이코 구단, 왕밍완 구단 등 세계 바둑계의 전설적인 기사들이 대거 참가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신안이 배출한 세계적인 바둑 스타 이세돌 국수(國手)의 형인 이상훈 구단도 이번 대회에 참여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한국 바둑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바둑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과후 바둑 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바둑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무안군, 양파 소비 촉진 활동 추진

전 직원 참여...5t 규모 자발적 구매

무안군은 3일 “양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무안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양파 30% 할인 기획전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활동에는 무안군청 전 직원이 참여해 양파 5kg 총 1천명, 5t 규모를 자발적으로 구매하

며 양파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무안군 공식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선 양파 구매 시 30% 1인당 5매 할인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 우수 농산물의 가치를 공식사회에서 먼저 알아보고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함평군, 귀농인 창업·주택 구매 융자 지원 접수

19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함평군은 3일 “오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차보전 융자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억원의 농업 창업 자금과 7천500만원의 주택 구매 및 신축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 활동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에 주택 신축도 가능해져 귀농인 정착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공지문 또는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061-320-21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완도군, 생활인구 유입 시책 ‘본격화’

치유 관광·농수산 등 23개 사업 발굴

완도군이 지역 활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인구 유입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고회는 생활 인구 유입이 국가 정책의 주요 방침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과 정주 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로 2023년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24개 부서에서 치유 관광, 외국인·귀촌 확대, 스마트팜·수산 가공 분야 창업 지원 등 지역 자원과 여건을 연계한 23개의 시책을 발굴·보고했다.
시책은 ▲청년·신규 귀촌 인구 유입 위한 농지 취득 요건 완화 ▲계절 근로형 비전문 비자 신설 및 자격 요건 통합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관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 ▲여객선 야간 운항 사업 확대 ▲해변공원, 다도해일출공원 야간 경관 개선 ▲은퇴 의료인 유입·정착 지원 ▲전국 초등학교 티볼대회, 크로스핏 전국대회 유치 등이 제안됐다.
완도군은 발굴된 시책 중 법·제도 개선 사항은 전남도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예산이 수



반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범우 부군수는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인구 유입과 장기 체류·정주 전환 정책의 강화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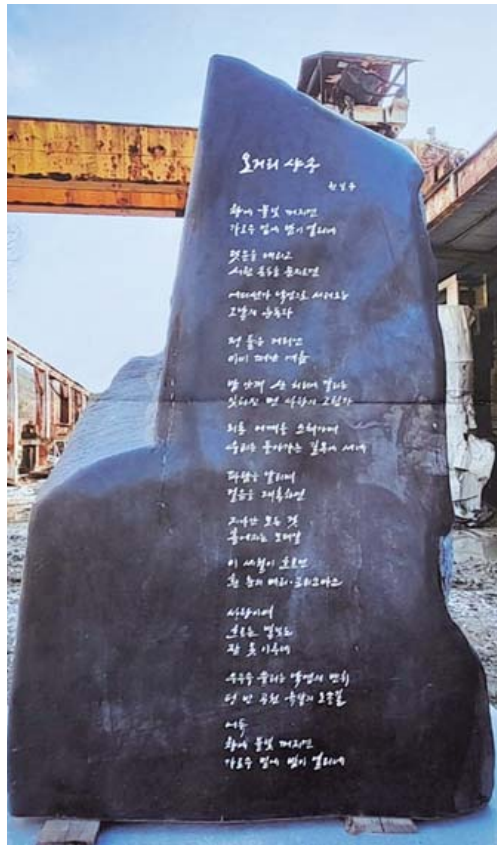
목포 원도심에 ‘오거리상송’ 시비 건립

10일 무안동 청소년문화센터 앞마당

재계향우·시민 성금...첫 민간 문학비

항구도시 목포의 중심지였던 60년 전 오거리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노래한 ‘오거리상송’ 문학 시비(詩碑)가 목포 출향인사와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3시 무안동 청소년문화센터 앞마당에서 권일송 시인의 ‘오거리상송’ 시비 제막식이 열린다.
시비는 재계 출향인사 56명과 목포시민 30여 명이 목포 오거리의 문화역사를 되살리자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면서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높이 3m, 너비 1.5m의 까만 빛돌 오석으로 건립되는 ‘오거리상송’ 시비는 목포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를 비추는 새로운 핫 플레이스라며 미래를 전망이다. 특히 침체에 빠진 목포 원도심의 문화를 조명하고 활기를 주는 마중물로 평가되

고 있다.
“창에 불이 꺼지면 가로수 밑에 밤이 열리네.”로 시작되는 ‘오거리상송’ 시비는 고(故) 권일송 시인이 1900년대 목포에서 영흥, 문태고등학교 교사와 문인 활동을 하면서 당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4계절 불야성의 목포 오거리 정취를 시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배종덕 오거리상송 시비건립위원장은 “1900~70년대 활력 넘치던 목포 오거리의 현장 문화를 알리는 첫 시도에 동참해준 인사들의 목포사랑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오거리상송을 노래로 만들어 오거리의 전설과 부활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홍미희 목포시 문학지원팀장은 “시비 건립에 따른 공공조형물 경관심의위원회 절차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오거리상송 문학비 건립으로, 예향 목포의 문화와 예술이 생동감 넘친 오거리 현장을 묘사한 시인의 언어를 통해 탐방객들이 직접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높이 3m, 너비 1.5m의 까만 빛돌 오석으로 만든 ‘오거리상송’ 문학 시비.



영암군 공직자들이 지난 2일 군청에서 ‘생활인구 증대 캠페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암군 제공>

‘생활인구 50만 시대’ 영암 공직자가 선도한다

캠페인·인식개선 설문조사 실시

영암군은 3일 “전날 6월 군 정례회와 함께 ‘생활인구 50만 시대’ 전략의 하나로 ‘생활인구 증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인구 전문가 조희정 더가늌연구소 부대표 특별강연, 공직자 인구문제 인

식개선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더해 일정 시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인구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특별강연에 나선 조희정 부대표는 ‘관계인과 만드는 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영암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캠페인에서 전체 공직자가 참여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영향 ▲필요한 정책 유형 ▲인구정책의 제고도 등으로 구성돼 향후 부서별 생활인구 과제 발굴, 맞춤형 정책 홍보 자료 개발 등에 활용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작은 관계에서 큰 인연까지 영암과 연결된 사람들을 생활인구로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각 부서에서 마련해 함께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영암=나동호 기자